

“서점문화의 正道만을 걷는다”

‘거리의 도서관’ 꿈꾸는 춘천 ‘청구서적’

한개의 국립대학을 비롯해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4개의 크고 작은 대학이 자리잡고 있어 1만여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학문을 갈고 닦는, 도시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학교로 불릴 정도로 전통적인 ‘교육도시’.

춘천은 그것 자체로서 춘천시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된다. 춘천 특유의 빼어난 풍광이나, 그곳이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춘천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니다.

춘천시 한복판의 명동에 자리잡은 청구서적은 그같은 문화적 자부심의 한 거점이 되어 왔다. 무려 26년간이나. 그러나, 이 청구서적이 처음부터 춘천문화의 특정한 거점이었던 것은 아니다.

경북 영주 태생으로 한때 서점점원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던 김종호씨(52, 청구서적대표)가 군제대 후 김억선생의 문학비가 있는 홍천에서 구멍가게식 서점을 개업한 것은 1964년 11월의 일. 26년전 육개장 한 그릇에 40원 하던 시절, 2300원의 넉넉치 못한 자금으로 시작한 청구서적은 71년 여름, 어렵사리 춘천으로 옮겨왔다. 현재의 위치인 명동에 들어서기까지는 다시 수차례의 이전을 거듭한 뒤의 일로, 각 층이 32평인 4층규모의 반듯한 지금의 외모를 갖춘 것은 오래지 않다.

산뜻한 간판을 이마에 달고 있는 1층에 들어서면 아동도서·참고서·문학류의 단행본이 세심한 손길에 의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전문서적이 뽁뽁이 들어찬 2층과 3층을 올라가면 40명에 가까운 직원들과 함께 청구서적을 이끌어온 김사장을 마주할 수 있다.

“경영방침이라면 正道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먼저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독자들로부터 청구에 책이 없어 서울로 가야겠다는 얘기를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자세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박이도 아닌 그가 이 지역문화의 산과역을 맡아 수행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진실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와 술수없는 경영방침의 결과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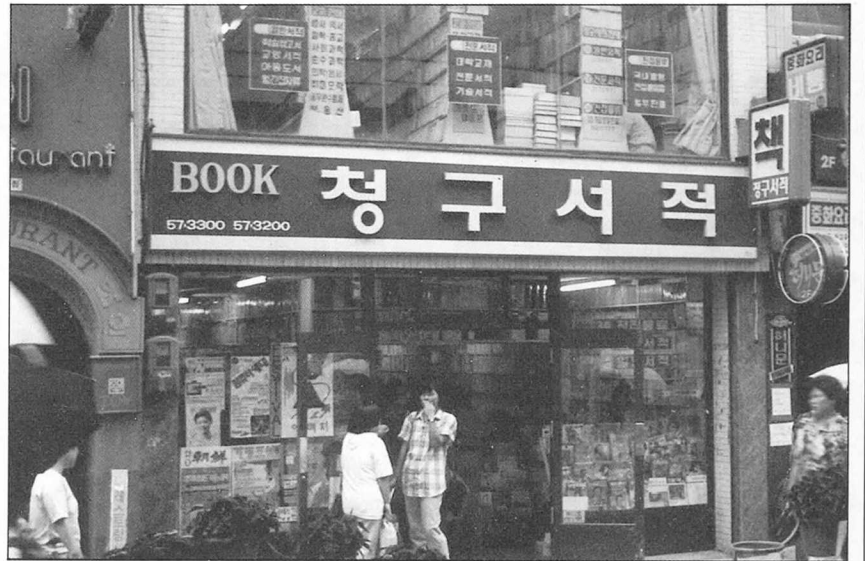
“제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막걸리 한 사발에 마주하고 진심을 전하면 어려운 일도 척척 잘 풀리더군요. 임기응변은 당시를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소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주의 정신은 직원들에게도 무리없이 받아들여졌던 모양. 이 서점에는 20년이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결혼후에도 복직을 해서 13년 이상 매장을 관리하는 여직원도 여러명 된다.

뿐만아니라 ‘청구인’으로 따로이 독립해 서점주로 제살림을 꾸려가는 이들도 양구·가평지역에 20~30여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상무이용범씨(46)는 전한다. 그 역시도 20년 가깝게 청구인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지금은 서점에도 맡다시피하고 있다.

“서점이 체모습을 갖춰가면서 학습참고서를 위주로 했던 방식을 탈피, 일반도서 중심으로 차츰 성격이 바뀌어왔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대학교재와 대학도서관 납품이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독서성향의 판도가 급격히 바뀌어 백화점식 서점으로서의 탈바꿈이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서점성격의 변화로 특히 이공계쪽의



청구서적 입구. 매장은 1·2층을 합쳐 64평이다.

서적에 관심이 부족해 아쉽지만, 의학서적만큼은 전국 어느 서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어 서울에서도 구입하기 위해 올 정도라고 설명하는 이상무는 베스트셀러로 가는 춘천의 독서성향은 서울과 무척 흡사하다고 말한다.

“대형서점이나 언론사에서 집계하는 베스트셀러목록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해보기 위해 두달에 걸쳐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서울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인지 10~15일 가량의 기간이 지나면 서울과 거의 같은 상태가 되더군요.”

소비형도시라는 측면과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실질적인 인구에 비해 판매량이 월등하다고 시장을 분석하는 이상무는, 이 지역 서점계의 특성으로 타지역에서 온 학생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학생층의 독자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방학이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는다. 유학(?)은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이 고장 학생들이 돌아오기 때문이 그 이유.

그래서 춘천의 서점계는 계절적 불황이 덜하다고들 한다. 사실 비슷한 인구의 인접도시에 비해 2배에 가까운 판매고를 보이는 것이 통계로도 증명된다.

이제 청년기를 맞아 성숙의 단계에 올라선 청구서적에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세심한 고객관리와 서점꾸미기, 매장확장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느 지방서점과 마찬가지로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실천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보다 넓은 매장을 확보하고 고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갖춘,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거리의 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태원 기자

**프로는
프로페셔널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원고에서 제작까지
그리고
광고기획도 책임집니다.**”

모든 일이 세분화되면서 더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능한 출판인이나 편집자의 역할은 요소 요소마다 누가,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림문화의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은 프로정신과 프로근성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 **우림문화가 하는 일**
 - 출판 기획 •편집 대행 •광고 기획
 - 원색 제판 •전산 사식 •수동 사식
 - ※ 사보와 사사 등의 기업문화 간행물과 잡지(정기간행물) 창간을 도와드립니다.
- **우림문화의 제작 시스템**
 - CTS 조판·편집 시스템 •원색제판 시스템
 - Art Work 시스템 •전산출력 시스템
- **우림문화의 일꾼**

10여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책임자들과 30명의 정예 태스크 포스트팀이 작업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